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컨버전스디자인학과	이름	안XX
파견국가	스페인	파견도시	하엔 Jaén
파견대학	하엔대학교 University of Jaén	파견기간	22-2학기, 23-1학기 (1년)
귀국여부	귀국 완료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하엔 대학교는 안달루시아주 내 하엔이라는 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엔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 대학교는 주요 인프라가 모여 있는 센트로와 걸어서 30분, 대중교통으로 15분 소요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대학교 메인 캠퍼스가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 어학당과 기숙사가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자체는 그리 크진 않지만, 캠퍼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따스한 분위기고 시설은 기본적으로 깨끗한 편입니다. 어학당 건물은 신축이라 쾌적하고 좋습니다. 학교 앞에 식당이나 카페가 몇 개 있고, 퀄리티가 좋진 않지만 학식당도 갖추고 있습니다.</p>
2022-2학기 수업	<p>저의 경우 전공학점을 모두 채우고 간 터라 어학당 수업 위주로만 선택하여 수강했습니다.</p> <p>(22-2학기)</p> <p>1. Curso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A1.1)</p> <p>스페인어 종합 강의입니다. 보통 헤네랄(General) 수업이라 부르고,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A부터 C까지 레벨이 있는데, A1.1은 가장 낮은 레벨로, 스페인어를 배운 적 없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교수님도 스페인어 보다는 영어로 설명해주시고, 학생들도 큰 열정이 없어서 많이 배우는 게 없는 수업입니다. 스페인어를 정말 배우고 싶다면, 오기 전에 독학으로 공부를 조금 한 후, A1.2나 A2.1부터 수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수님은 Irene라는 분이셨는데, 하엔 대학교 CEALM 정식 교수님은 아니신 것</p>

	<p>같았고,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단호한 면이 부족해 학생들이 강의를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숙제는 종종 내주시는 편이고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시험은 말하기 시험과 필기 시험을 보고, 출석 잘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으면 쉽게 패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어를 늘리고 싶다면 A1.1 수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p> <p>2. Comunicación intercultural</p> <p>이 Intercultural Communication는 여학당 수업이지만, 영어로 진행되는 문화 토론 수업입니다. 특정한 교안은 없고, 교수님이 준비해 오시는 PPT와 학생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로 구성되어 자신의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시에는 프랑스, 보스니아, 미국, 대만, 독일, 브라질, 자메이카, 터키 등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 명씩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각 나라 별로 질문하기 때문에 대표하여 발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 복지, 음식, 축제, 교통, 관습 등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영어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영어가 능하다고는 못하겠지만,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하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Ester 교수님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정식 CEALM 교수님은 아니었으나 학생들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시고 스페인에 관해서도 흥미롭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동일한 교수님일 경우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학기에 다른 교수님으로 변경되고는 수업의 본질이 흐려졌다는 이야기를 들어 추천하기는 어렵고, 수강하길 원한다면 OT에 들어간 후 선택하는 것을 권합니다. 시험은 스페인 문화를 다룬 객관식 시험과 스페인과 자국의 문화를 비교하는 에세이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p>
2023-1학기 수업	<p>1. Curso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Nivel A2.1)</p> <p>앞서 언급했던 스페인어 헤네랄의 기초 수업보단 조금 높은 레벨의 수업입니다. Sergio 교수님 지도하에 이루어졌던 강의였는데, 교수님은 영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페인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하십니다. 스페인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주차가 늘어날 수록 귀가 많이 트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Sergio 교수님 수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교수님께서 재치 있으시며 사려 깊은 분이셔서 재밌게 웃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름도 한 명씩 다 외워 참여를 이끄시는데, 이 점이 부담스러우시면 추천하진 않습니다. 스페인어 기초가 조금 있다면 바로 A2 레벨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안은 Vitamina</p>

A2로 헤네랄 수업에서는 모두 Vitamina 책을 사용합니다. 숙제는 거의 매일 내 주시는데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매 수업 초반에 숙제 정답을 같이 맞추기 때문에, 수업을 빠지면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중간중간에 짝을 이루어 활동을 할 때도 있고 교수님이 캐주얼하게 스페인어로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당황할 수 있지만, 다들 완벽하지 않고 교수님도 도와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험은 말하기 시험과 필기 시험이 있는데, 말하기는 5분동안 내 취미와 여유 시간에 무얼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필기 시험은 문법, 듣기, 단어, 쓰기 능력을 다 보는 종합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난이도가 그리 쉽진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에 더욱 관심이 생기고 앞으로 스페인어 공부를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강의였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A2.1을 추천한다기 보다는 Sergio 교수님의 강의를 추천합니다.

1. Español Normativo 1: gramática y vocabulario

이 강의는 스페인어 문법 수업입니다. 알파벳, 발음부터 관사, 동사, 다양한 동사 시제 등을 배울 수 있는 기초 수업입니다. 다만 수업은 영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업 또한 Sergio 교수님 지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페인어 동사 시제가 매우 복잡하고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쪽지 시험을 4번 정도 봤던 것 같고 최종 시험은 필기 시험 하나만 봅니다. 숙제는 거의 매일 있습니다. 이 수업은 A2.1 수업과 들었기 때문에 시너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1.1 강의에서는 동사 과거 미래 시제를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A2.1 수업에서는 과거, 분사, 미래 등 시제를 배우기 때문에 같이 들었을 때 이해가 더 잘 되고 복습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A1 강의와 같이 들었을 경우 수준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버겁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교안은 스페인어 문법책으로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스페인어 말하기를 늘리고 싶다면 문법 수업보다는 오랄 수업을 추천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p>학기 초반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과 웰컴 파티가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ESN라는 에라스무스를 위한 그룹이 있는데, 해당 왓츠앱에 들어가면 파티 등 다양한 활동 정보들이 올라옵니다. 적은 비용으로 타파스 투어, 하엔 투어, 하이킹, 피크닉 등 본인이 원한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p> <p>학생들 사이에서 하엔 대학교 국제처는 정말 악명이 높습니다. 일처리도 느리고 담당 선생님들도 적어서 회전율이 정말 낮습니다. 심지어는 운영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며 수강신청 기간에 찾아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려야 하는데 1시간 넘게 기다려도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특정 양식을 작성하라고 답장이 오는데, 제출해도 특별히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p> <p>스페인 내 행정처리는 대부분 느리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의 날씨가 덥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가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8월 말에 도착하니 엄청 덥다가 보다는 햇빛이 뜨거워서 놀랐습니다. 한국과 다르게 날씨가 건조하여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편입니다. 다만 하엔을 떠나기 전 6월 말쯤 갑자기 급격하게 더워졌고, 뜨거운 바람과 함께 40도까지 올라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에스타 시간엔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더우며 누군가 쓰러질 수 있는 날씨겠다 싶었습니다. 에어컨이 없더라도 집은 비교적 시원한 편이며, 선풍기로 버텼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정말 덥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p> <p>겨울은 한국만큼 춥거나 눈이 오진 않지만, 꽤 추운 편이고, 집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에 시원하도록 지은 집들이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겨울에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오랜 시간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틀었습니다. 전기장판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피가 작다면 가져오시고 그렇지 않다면 현지에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하엔에서 독일제품으로 구매했는데 오히려 더 만족하면서 사용했습니다.</p>

<p>안전</p>	<p>스페인 은 큰 도시, 관광지 가 아니라면 대부분 안전한 편입니 다. 시에스타 시간 때문인지 저녁을 늦게 먹고, 식당이 보통 저녁 8시에 열어서 12시에 닫는 편이라 밤 늦게 까지 거리가 북적입니 다. 하옌은 특히나 안전한데 밤 늦게 새벽 1~2시에 돌아다니더라도 큰 문제 가 없습니 다. 그래도 언제나 조심하는 게 좋습니 다.</p> <p>하옌은 시골이라 동양인이 많이 없습니 다. 현지분들도 동양인을 많이 못 봐서 그런지 신기한듯 쳐다보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 다. 간혹 '니하오' '치나, 치노' 등등 인종차별 비슷한 언행들이 들려올 수 있으나 위협적이지는 않습니 다.</p>
<p>숙소</p>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0) 기타()</i></p> <p>학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보통의 유럽 대학교들과 다르게 스페인에서는 방을 구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 다. 보통 'idealista'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집을 보고 집주인과 연락해서 구하는데, 괜찮은 집들은 빨리 계약이 되는 편이라 늦게 하시면 남은 집들이 없을 수 있습니 다. 보통 외국인 친구들은 집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하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의 방들이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저는 전학기에 살았던 분들의 방을 양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p> <p>저의 경우 8월 말에 도착하여 남은 방이 거의 없었으며, 호텔에 3일 정도 머물면서 막막해 하던 찰나 한국인 단체 카톡 방에 방 한 개가 남았다는 연락이 올라와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름-겨울 학기 파견이라면 조금 일찍 집을 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8월은 휴가철이라 부동산도 문을 닫고 하옌 시민들도 많이 없는 기간입니 다.</p> <p>보통 집들은 3~5개 방과 1~2개의 화장실을 가지고 있습니 다. 각자 방이 있고 화장실은 함께 사용합니다. 한 달에 보통 200~220 유로를 냅니 다. 조금 저렴할 경우 180유로, 비싼 경우는 250유로까지도 보았습니 다. 공과금은 20~40유로 정도로 총 포함했을 때 한화로 30만원 조금 웃도는 금액을 내게 됩니 다. Idealista를 통해 집을 구한다면 남녀 혼성인지, 하우스 메이트가 아닌 베드 메이트를 구하는 건지, 흡연이 가능한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 다.</p> <p>교환을 가기 전에는 외국인 친구들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나,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 살게 되었고, 끝내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 다. 특히 청결에 예민한 분들이라면 외국인과 사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 다. 주변 외국인들과 사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힘들어하는 경우를 되려 봤습니 다. 집에선 마음 편하게 한국인 친구들과 보내고, 외국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식사</p>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 외부식당 () 직접 요리 (0) 기타 ()</p> <p>일단 스페인은 마트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디아, 메르까도나, 마스이마스, 까르푸 등 마트에서 장을 봐와 밥을 해 먹었습니다. 주로 직접 해서 먹는다면 식비는 크게 많이 나오지 않으나, 외식을 할 경우 외식 물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식비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내에서도 스페인이 물가가 싼 편이고, 안달루시아 내 하엔이 특히 저렴한 편이라 크게 부담되진 않습니다. 한식 재료가 필요하면 마드리드나 그라나다, 혹은 여행 갔을 때 아시안 마트를 들러 사왔습니다. 스페인 쌀은 한국과 조금 다르긴 하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p> <p>학교와 집의 거리가 꽤 되었기 때문에 강의 사이사이에 밥을 먹어야 했다면, 학교 카페테리아를 이용하거나 그 앞 카페에서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엔 토스트 샌드위치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메뉴 델 디아라고 '오늘의 메뉴'를 파는데 빵, 메인, 디저트, 음료까지 해서 6~9천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메뉴 델 디아가 조금 비싼 편이고 토스트 샌드위치는 보통 1~3천원 내로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카페테리아 내 음식들이 맛은 없으나,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곳에서 한 끼를 때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종종 집에서 샌드위치, 샐러드 등을 싸와서 카페테리아에서 먹기도 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p>	<p>저는 센트로 중심, 하엔 성당 주변에 거주하였으며, 학교와 도보로는 30분 버스로는 15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주로 등교할 때는 산책할 겸 걸어갔으며, 하교할 때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덩고 힘이 들어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카드는 하엔에 도착하자마자 만드는 것을 추천하는데 시청 건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버스카드를 만들 경우 한 번 탈 때마다 0,18유로로 굉장히 저렴하고, 6개월 동안 10유로만 충전하여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버스카드 없이는 현금 1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글맵으로 버스노선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시간이나 루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엔 버스 어플이 따로 있으니 그걸 다운 받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p> <p>하엔은 여행다니기 조금 힘든 도시일 수 있습니다. 보통 마드리드 공항으로 가는데 기차로 편도 4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렌페 아보노라는 프로모션이 있어서 20유로로 패스를 구매하여 하엔-마드리드를 무제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행 경비는 절약할 수 있으나,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말라가, 그라나다 등 다른 도시는 알사버스를 이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1.151.300원	에티하드 항공 (인천-마드리드 왕복)
보험료	264.400원	한화손해보험 유학생보험(11개월)
비자비용	200.000원	장기비자용 건강검진, 공증 발급 비용 포함
숙소	300.000원*10개월 = 3.000.000원	세어하우스 월세 200유로+공과금 약 30유로
식비	300.000원*10개월 = 3.000.000원	숙소+생활비로 한 달에 60만원
여행비	10.000.000원	10개월 체류 중 1개월에 100만원 사용 목표 (11개국 여행)
합계	약 20.000.000원	생활비 6.000.000원 여행비 10.000.000원 준비비용 2.000.000원 기타 2.000.00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가기 전 본인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휴학 없이 4학년 1학기 까지 본교에서 학교생활을 한 후 4학년 2학기, 5학년 1학기까지 초과학기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어 편협한 시각을 가지는 게 싫었고, 더 넓은 곳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싶어 교환학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교에서 학점도 다 채우고 마음 편히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하엔 대학교에서도 부담 없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여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 혹은 다른 학과 친구들은 인정받아야 하는 학점을 신경 쓰느라 조금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환학생을 일찍부터 가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계획을 잘 짜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환 온 친구들을 보면 누구는 외국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누구는 여행을 다니기 위해, 누군가는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오게 됩니다. 저는 휴학 대신 교환 생활을 택했으며 잠시 쉼을 가지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겠다는 목표로 오게 된 것이고, 내내 만족했으며, 지금 돌아봐도 잘 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모든 것을 다 잡긴 어렵습니다. 외국어 실력도 늘리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고 학점도 많이 받고 싶다면, 교환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학기 파견인 친구들이 많은데 5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여유 있게 보내고 싶다면 1년 파견을 추천합니다.

또한 국가나 도시도 본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 등 국가보다는 남쪽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가 낫습니다. 연중 대부분의 날들이 맑습니다. 다만 여름엔 햇빛이 뜨겁고 더울 수 있습니다. 도시의 경우 본인에게 시골이 맞는지 큰 도시가 맞는지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10개월 간 스페인에서 지낸 후 돌아 온지 얼마 안되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꿈같은 시간이었고, 가지 않았더라면 크게 후회했을 소중한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고 가끔은 버겁더라도,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짧으면 5개월, 길면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번쯤은 외국에서 지내보는 것이 누구에게든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언어 실력이든, 전문 확장이든 그것들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나를 알아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내면적으로 많이 변화함을 느낍니다.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다른 인종,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완벽하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소통해 나가는 그 과정이 자체로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출국했지만, 많은 환상이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과 살아보는 것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여행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살아보면 속속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유럽 국가들의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제 마음에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멀지 않은 날에 또 해외로 나가겠다고 마음먹게 될까봐 스스로가 무섭기도 합니다. 해외 생활을 통해 용기가 생기고 언젠가 또 나갈 수 있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 같아 뿌듯한 감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 이제 이번 교환생활을 통해 얻어낸 넓은 시야와 단단한 마음으로 디자이너로서 좋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가치 있는 이번 경험이 언젠가 빛을 발하리라 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Sergio 교수님께 선물과 편지를
드린 마지막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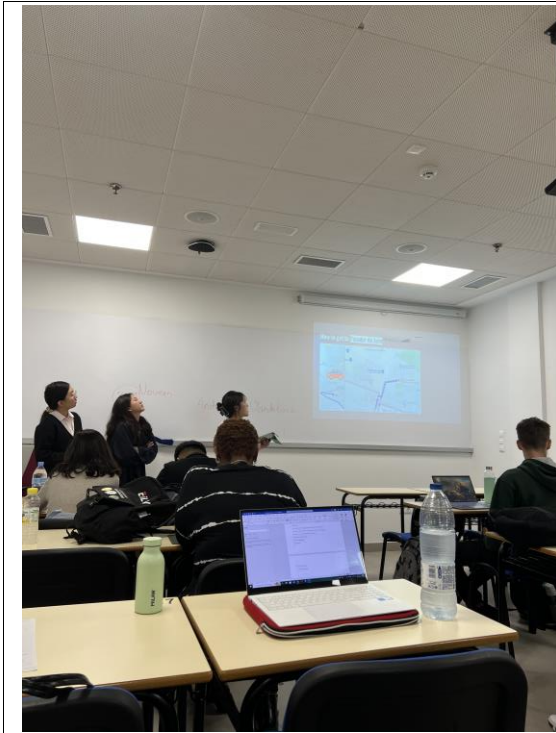
Jaén 성당



하엔의 부활절 퍼레이드



외국인 친구들을 위해 요리한 한식



어학당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수업 발표



하엔 블레발 공원